

한국 공공도서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Solutions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송 정 숙(Jung-Sook Song)*

〈목 차〉

- | | |
|---------------------|---------------------|
| I. 머리말 | 5. 도서관 건축구조의 낙후성 |
| II. 정보화 시대와 공공도서관 | IV. 공공도서관의 개선방안 |
| 1. 정보화 시대의 생존전략 | 1. 공공도서관 건립 운동의 추진 |
| 2. 정보화 시대의 복지전략 | 2. 장서구입비의 대폭 증액 |
| III.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 | 3. 단순업무에서 전문직무로의 전환 |
| 1. 공공도서관의 절대수 부족 | 4.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
| 2. 장서의 절대 부족 | 5. 보존을 위한 도서관 건축 |
| 3.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 | V. 맺음말 |
| 4. 서비스의 영세성 | |

초 록

정보화 시대에 공공도서관이 필수불가결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회복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복지의 핵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그 수가 절대 부족하고, 장서도 부족하며, 인력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영세하며, 도서관의 건축구조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시민이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의 건립운동을 전개하여 절대수를 늘리며, 장서구입비도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사서는 이용자와 자료의 중개자로서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도서관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정보격차, 지식, 정보, 책읽기, 도서관 건립, 장서구입비,

Abstract

The author explored the survival and prosperity strategies for Korean public libraries in the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She reviewed that public libraries can perform these strategies or not. On the basis of the review, she identified 5 problems of public libraries ; shortage of libraries and collections, staff inefficiency, inadequate services, inefficient design of library facilities. And then she proposed solutions to improve the present state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 campaigning for constructing libraries, increasing the materials budget, turning nonprofessional work to professional work of staff, and constructing libraries for safety and preservation.

Key Words: public library, digital divide, knowledge, information, reading books. constructing libraries, materials budget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 접수일 : 2003. 2. 27 • 최초심사일 : 2003. 3. 4 • 최종심사일 : 2003. 3. 4

I. 머리말

필자는 1998년 1년 동안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그때 집 근처에 있던 공공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자주 이용했다. 그 도서관은 미술관·음악당·자연사박물관과 함께 붙어있는 대리석 건물로서 입장료를 받는 미술관이나 음악당과 달리 무료임을 알리는 'Free to the People'이라는 글자가 도서관의 정면 위쪽 돌벽에 크게 새겨져 있었다. 공공도서관이니까 옆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입장료를 낼 돈이 없어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것은 염려 말고 무료이니 누구나 들어오라고 알리는 것이다.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지만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조금 닳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깨끗한 곳이었다. 그곳은 보호자의 신분만 확인되면 초등학교 입학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에게도 대출증을 즉석에서 발급해주며, 1인당 도서 20권, 오디오·비디오자료 10점을 3주간 대출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였다. 그때에는 아이의 대출증만으로 그림책 20권, 오디오북·비디오테이프 10점 합계 30점을 빌리면 배낭에 다 넣을 수가 없어 손가방을 하나 더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또한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storytime), 방학 때에 운영하는 독서클럽(reading club)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모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귀국 후인 1999년에 집 근처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당시 유치원생이던 아이와 간 적이 있다. 어린이실에 가서 책을 빌리려 하니 초등학교 입학전의 어린이는 책을 빌릴 수 없고 나의 이름으로 2권을 1주일간 빌릴 수 있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2권을 빌리러 지하철에 내려서도 10여분 걸어서 그곳까지 가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그때 아이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책을 많이 빌려주는 데 우리나라는 빌려주지도 않고, 엄마 이름으로도 겨우 2권밖에 안 빌려주느냐고 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잘 살기 때문에 도서관에 책이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던 적이 있다.

1년이 지난 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이의 대출증을 만들어 나의 대출증과 함께 1인당 2권씩 4권을 빌릴 수 있었다. 그때 "P도서관에서는 1인당 3권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2권이나?"고 물었더니 사서는 "P도서관은 P도서관이고, 여기는 2권만 대출한다. 하지만 1인당 2권이라도 가족이 4명이면 8권까지 빌릴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나?"고 반문했다. P도서관보다 서비스가 나빠서 미안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무료로 빌리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의 투였다.

이때 필자는 우리 공공도서관이 1980년대 이후 입관료 폐지, 개가대출, 이동도서관,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거두었음에도¹⁾ 불구하고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이 논문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정보혁명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의 공공도서관이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장치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큼 도서관은 준비가 되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국 공공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정보화 시대와 공공도서관

1. 정보화 시대의 생존전략

현재 한국사회는 자본과 노동력이 재화를 창출하는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재화를 창출하는 주요수단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원격통신과 이동 전산망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혁명, 즉 정보혁명의 진입로에 서 있다. 정보혁명은 우리를 기계의 시대로부터 멋진 신세계로 이끌어갈 것이다. 더 이상 소심한 자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용감한 자들, 즉 엘리트만이 그곳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세계는 20세기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뒤 흔들고 그 권력 기반 및 사회제도들을 완전히 붕괴시킬 잔인한 세계이다. 세계가 점점 컴퓨터로 연결됨에 따라 노동은 점점 단순 분업으로 바뀌고 있으며,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은 농장에서 일하던 말이 트랙터로 대체되는 것과 같은 식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제 육체노동은 극소화되고, 정신노동이 모든 것을 뒤덮을 것이다.²⁾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개인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는 능력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인 지식, 즉 창의력을 지녀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유형, 무형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력의 원천은

1)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17.

2) Ian Angell, 지식노동자선언, 장은수 역 (서울 : 룽셀러, 2001), p.32; p.97.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지적인 힘을 길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을까?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한결같이 책읽기에 있다고 답한다. 컴퓨터의 황제라고 일컫는 빌 게이츠에게는 할머니의 지적 명민함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따금 손자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는데, 그 결과 게이츠는 광범위한 분야에 흥미를 가진 독서광이 되었다.³⁾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 때 독서 캠프를 열곤 했는데, 게이츠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아동부에서 언제나 일등을 차지했고, 때로는 전체에서 일등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학교에서 A점수를 받을 때마다 25센트 동전을 하나씩 주었고, 모두 A점수를 맞으면 ‘금단의 과실’인 주말 텔레비전 시청을 허락했다고 한다.⁴⁾ 그리하여 그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 도서관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책이 가득한 마을 도서관이 디지털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의 어머니였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독서다. 어릴 적부터 독서광이었던 그는 지금도 해마다 책을 읽기 위해 한 달씩 휴가를 내어 혼자 틀어박힌다고 한다. 이 책읽기를 통해 빌 게이츠는 세계와 미래를 읽는 힘을 얻는 것이다.⁵⁾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회·경영학자이자 미래학자’ 또는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일컬어지고 있는 피터 드러커(1909-)는 “정보화가 될수록 읽기 교육을 배가하여야 한다. 읽기 능력만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책읽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1년 혹은 2년마다 새로운 주제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으며, 90살이 되어가던 때에도 여전히 《월스트리트 저널》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자신의 글을 기고했다. 지금도 그는 수많은 책과 잡지를 탐독하며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편지를 쓸 때에는 타자기를 손수 두드리는 등 그의 일상적인 삶에는 정보혁명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⁶⁾ 그의 사상은 현실에 대한 충실한 관찰에 기초하지만 그 내용은 한 시대를 앞지르는 선구적인 것이었다. 1969년에 출간된 『불연속성의 시대(The Age of Discontinuity)』는 당시의 인습적 사고를 수십 년이나 앞지르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의 예측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는 누구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지만, 현재의 비밀을 푸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현재는 점술가의 유리구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의 상황이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하였다.⁷⁾ 이처럼 현재에 대한 관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은 기호를 보면서 기호 뒤에 숨은 의미를 생각하는, 즉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사고하는 책읽기에서 길러진다고 하겠다.⁸⁾

3) 빌 게이츠는 특히 아동문학의 고전에 속하는 「샤롯데 웹브」, 「두리틀 박사」와 「돼지 프레디」, 「톰 스위트」, 「타잔」 시리즈 같은 자연과학적인 소설들을 좋아했다. Stephen Manes, Paul Andrews, 빌 게이츠 훑치기, 이진광·이지선 옮김 (서울 : 푸른산, 1994), p.48.

4) 상계서, p.49.

5) “‘책맹 사회’ 추방하자,” 시사저널, 제607호(2001. 6. 13), p.88 참조.

6) Robert Heller, 피터 드러커, 김한영 옮김 (서울 : 황금가지, 2001), pp.8-15.

7) 상계서, pp.101-119 참조.

8) 송정숙, “정보화 시대에 ‘책읽는 학교’ 만들기의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창출하는 창의력의 근원인 책과 책 읽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영속적인 문화인프라는 무엇일까? 이는 다름 아닌 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실물장서와 아울러 가상공간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 가운데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선별, 가공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총체를 제공하는 곳이 공공도서관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유통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지식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식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짧아졌다. 주제에 따른 지식의 반감기를 보면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통은 인문학에 비해 더욱 짧다. 학문의 진전에 따라 반감기는 더욱 짧아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평생 사용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지속적인 자기교육, 즉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이 일상화된다.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고용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자기교육, 즉 평생교육이 요구된다. 자기 계발과 평생교육의 장인 공공도서관에서는 생존을 위해 계속교육이 필요한 개인에게 인쇄자료와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전자자료를 구비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최선의 정보원을 제공함은 물론 전자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 등 급변하는 사회의 지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공공도서관이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동적인 체제로 변모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그렇게 할 때만이 공공도서관은 정보화 시대에 재화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생존가능할 뿐 아니라 더욱 성장·발전하게 될 것이다.

2. 정보화 시대의 복지전략

2.1 경쟁력 회복 지원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이 다양한 노동상황에 신속하게 침투하여 지능기계가 무수한 과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수많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 대신 정보화 기술에 적응한 소수의 창조적인 개인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노동자로 살아남는다.

초기산업기술은 노동력의 육체적인 힘을 대체했다.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인간의 마인드 자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생각하는 기계가 경제 행위의 전영역에 걸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대다수 산업국가에서 노동력의 75% 이

9), pp.286-287.

9) H. C. Campbell, 이병목 역, 공공도서관개발론, 이병목 역(서울 : 구미부역(주)출판부, 1990), p.145.

상이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기계, 로봇, 더욱 더 정교화되고 있는 컴퓨터는 이런 작업들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만도 향후 1억 2,400만명의 총 노동력 중 900만 명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¹⁰⁾ 이는 4개의 일자리 가운데 3개는 이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1997년 1월 18일자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1970년 이후 25년 동안 선진국들에서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28%에서 18%로 떨어졌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년 이내에 그 비중은 10%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술의 발달이 농업에 준 충격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1860년대에 농업의 고용비중은 미국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현재 농업의 고용비중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화는 전통적인 일자리, 즉 생계를 위한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대다수의 사회가 계속해서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일자리만 고집하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¹¹⁾

비숙련·반숙련의 노동력은 살 길이 더욱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외국의 값싼 노동력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전문가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이처럼 경쟁에서 뒤진 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차원에서 이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쟁에서 잠시 뒤진 자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 공공도서관의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의 서재이고 정보 센터이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인 공공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에의 평등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성을 실현하기 위한¹²⁾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리된다면 정보화 시대에 공공도서관은 정보복지를 구현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2 정보격차 해소

최근 들어 '사회적 신분'의 상승이 이전에 비해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평등-불공정 국민의식조사' 연구책임자인 석현호는 "IMF사태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2분화된 사회'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¹³⁾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5년이 지난 이

10)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는 이러한 이행의 중요성을 음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보다 정교한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하여 마치 농경시대에 말의 역할이 트랙터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되고 제거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의 인간의 역할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Jeremy Rifkin,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서울 : 민음사, 1996), pp.21-24 참조.

11) Ian Angell, 전계서, pp.108-109.

12) 이연옥, 전계서, p.11 참조.

13) 불평등과 공정성 전국표본조사 연구보고'에 따르면, 아버지가 농민일 경우 자식이 정신근로자(전문직, 사무직, 관리직 등)가 되는 비율이 1995년에는 39.6%이었던 데 비해 2000년에는 8.8%줄어든 30.8%에

즈음 소득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화되었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1997년 0.283에서 2001년엔 0.319로 상승했다. 또 1997년에는 소득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20%의 사람들보다 4.49배를 더 벌었지만, 2001년에는 5.36배 더 벌 것으로 나타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¹⁴⁾

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능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정보의 격차(digital divide)를 야기하게 된다. 국가나 사회마다 그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정보격차의 유형이나 심화수준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득, 학력, 지역 등이 그 주요원인이다. 이러한 간극은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정보격차란 유의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층 혹은 지역 간에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을 말한다.¹⁵⁾

정보격차는 단지 정보 획득이나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의 경제적·구조적 불평등과 교육·문화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이 취업이나 교육기회 등에서 크게 제한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는 곧바로 소득 수준의 저하로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는 곧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로 악순환 하게 된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 누구나 그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정보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계층·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정보격차를 보여주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성별과 지역간 격차를 제외한 연령·학력·소득·직업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¹⁶⁾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높아졌지만 정보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정보사회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쳤다. 반대로 농민 아버지를 둔 자녀가 육체근로자가 된 비율은 1995년 32.1%에서 2000년 41.6%로 늘었다. 반면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 정신근로자가 된 비율은 1995년 70.0%에서 2000년 72.5%로 늘어 우리 사회에서 ‘계층의 세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특별연구팀(연구책임자, 석현호), “불평등-공정성 국민의식조사,” 동아일보, 2001. 4. 5.

14) “IMF 5년 ‘절반의 성공,’” 부산일보, 2002. 11. 21.

15) 정보접근은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정보이용은 그 기술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가공·처리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초고속통신망의 가입 여부와 컴퓨터 보유 유무 등이 정보접근에 속하고, 인터넷 사용 및 활용 여부가 정보이용 측면에서 정보격차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 세계적으로는 “뉴욕의 인터넷 사이트 숫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있는 것보다 많고 핀란드의 웹사이트 수는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의 웹사이트를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인터넷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말이 정보 격차의 실례로 등장 하곤 한다.

16) 1999년 10월과 2002년 6월에 조사한 통계를 비교해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두배 이상, 소득간 격차는 세배 이상, 그리고 학력간 격차는 두배 이상 증가했다. 또 블루칼라 직종과 학생들간의 격차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걸, “정보격차 해소는 지속적으로,” 중앙일보, 2002. 10. 16.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화 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정보화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과 노·장년층, 육체 노동자와 농어민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정보사회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은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으로 이어져 정보화의 그늘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더욱 확대할 때다.¹⁷⁾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② 국민 누구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③ 정보취약계층의 정보능력 향상 및 피교육자 중심의 균등한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④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콘텐츠를 확보하며, 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정부, NGO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¹⁸⁾

그러면 위의 ①-④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관은 무엇일까? 통신기기를 구비하고, 언제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항구적인 기관은 무엇일까? 바로 다름 아닌 주민과 이웃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정부에서는 우체국을 정보격차 해소의 센타로 활용하고 있지만,¹⁹⁾ 오히려 공공도서관이 더욱 적합하다. 왜냐하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기를 갖춘 인터넷 프라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전자 정보 이용교육을 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이 오프라인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 자료에 접근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나에게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컴퓨터로써 자료검색이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환경을 제공하며,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계속교육이나 정보습득을 위한 콘텐츠, 즉 인쇄자료나 전자자료를 무

17) 상계자료.

18) 오광석·조정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전산원, 2000.12), p.6. 한국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2002. 9. 3.

19) 정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4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접근 환경 조성, 정보이용능력 향상이라는 세 가지 분야의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년에 전국 196개 읍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1999년에는 농어촌 벽지지역 우체국 100개소에 인터넷플라자를 설치하였으며 2000년까지 100개소를 추가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PC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 등을 위해 중고 PC를 수리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우수학생 5만 명에게는 인터넷 PC 무상 보급과 함께 5년 간 인터넷 무료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정보통신 요금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생활보호자·국가유공자에게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과 농어민·주부·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50여 개 우체국에 정보교육센터를 설치했고, 2002년까지 100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16곳에 주민 컴퓨터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4.5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노력," 2000 국가 정보화 백서(요약) (서울 : 한국전산원, 2000). 한국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cited 2002. 10. 25]

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기관은 공공도서관밖에 없다. 공공도서관에서는 경쟁에서 뒤져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식과 정보에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드웨어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함은 물론이고,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종이 매체와 전자 매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정보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에 공공도서관과 사서들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도서관은 어른과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하며, 계속적으로 자기 연찬을 하고, 학문과 예술의 진보에 보조를 함께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²⁰⁾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접근하기 편리해야 하고, 각 주제에 걸친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이는 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주민에 위한, 주민을 위한 공익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민의 성원과 지지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회적 장치라고 점차 도태되기 마련이며,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어떠한가?

1. 공공도서관의 절대수 부족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1981년에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선 이래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37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문화부가 출범한 1990년 이후부터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행정구역 3,512개(읍, 면, 동)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설치된 행정구역은 409개(11.6%)에 불과한 것을 볼 때,²¹⁾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0,485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서 일본(48,852명)은 물론 말레이시아(44,144명)와도 비교가 안 된다. 특히 서울은 인구 245,932명에 공공도서관 1개, 인천은

20)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 H. C. Campbell, 전제서, p.167.

21) 정동열·김성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13권, 제2호 (2002. 12), p.10.

286,839명에 1개이다. 공공도서관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핀란드(3,174명), 독일(3,971명), 덴마크(4,583명), 프랑스(13,982명)²²⁾ 등과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격차가 현격하다.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일은 한 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이다.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문화를 향수할 권리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국민의 알 권리, 문화를 향수할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매우 소극적이다. 인구 12만 명을 넘어선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공공도서관이 없어 몇 년째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사업 착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²³⁾

2. 장서의 절대 부족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지식과 문화발달의 산 증거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력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자료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형성하고, 창조적·비판적 능력과 감상력을 함양하도록 도울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이 어떠한 매체로 표현되었건 상관없이 이를 전달하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 전체장서는 교육 및 문화수준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도록 모든 주제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⁴⁾

그런데 우리 공공도서관의 장서현황은 어떠한가? 우리의 공공도서관 장서는 우선 양적으로도 절대 부족하다.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한국이 0.56권에 불과해 핀란드(7.15권), 덴마크(5.96권), 미국(2.59권), 일본(2.19권)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²⁵⁾

이런 까닭에 공공도서관에 가면 베스트셀러는 대출중이고 신간은 아직 입수되지 않은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자료를 입수하는 데에 두어번 실패하고 나면, 즉 공공도서관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대 효과를 대비해 보았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아예 공공도서관 가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22) 공공도서관협의회, 공공도서관요람 2002 (서울 : 공공도서관협의회, 2002), p.10.

23) “2002년 10월 29일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당시 시는 해운대구 좌동 1385번지 대천공원 입구 인근 시 종합건설본부 소유 1천500여 평을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인 도서관 예정 부지로 지정하였다. 시는 또 해운대구청이 해당 부지를 사들인 뒤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부지 매입비 등 관련 예산 60억원 이상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며 지난 1998년 이후부터 시에서 직접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구청의 건의를 일축하고 있다.” “해운대신도시 도서관 '하세월' 계획만 세워놓고 '돈없다' 차일피일,” 부산일보, 2002. 10. 29.

24)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 H. C. Campbell, 전게서, p.169.

25) 한국은 2002년 통계이고, 다른 나라는 1998년 통계이다. 공공도서관협의회, 전게서, p.10.

는 데에 문제가 있다.

신축도서관인 경우는 장서가 아직 축적되지 못한 점이 있겠으나 이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불만은 역사가 있는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장서구입비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자료의 부족은 불문가지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도서관구입비를 배정하지 않아 1년간 단행본을 1권도 구입하지 못한 부산의 강서도서관을 들 수 있다.²⁶⁾ 여기에서 공공도서관의 도서관구입비가 고정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도서관구입비를 배정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행정당국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산을 동결해야 한다면 도서관구입비부터 동결하고, 삭감해야 한다면 도서관구입비부터 삭감하는 것이 문화관광부도 그러하고, 대학도 그러한데, 하물며 구청인들 그렇게 못할 까닭이 있겠는가?

3.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

우리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1관당 평균 4명이다.²⁷⁾ 그런데 이나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니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개선되기는 요원하다. 우선 도서관 건물이 교실처럼 여러 개의 독립된 방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개별 방을 관리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의 건축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용자에게 직접 봉사하는 열람담당 사서들은 대부분 대출·반납과 서가배열로 거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열람담당 현장사서들의 일상업무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 시간에서 대출·반납 업무에 40-50%, 장서배열에 10%, 장서관리와 연체자 독촉 등 독서회원관리에 10% 이상이 소요된다.²⁸⁾ 이처럼 하루의 반 이상을 대출과 반납 등 단순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 이용자에게 대한 자료제공과 참고봉사는 뒷전이 된다. 이는 사서가 이용자의 자료선택과 질의에 응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구조가 아니

26) 강서구청이 예산난을 핑계로 강서도서관에 도서관구입비를 배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1년 이상 도서관에서 새 책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강서도서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1월에 도서관구입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이후 지금(2001년 3월 26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강서도서관은 지난 1999년 말에 지원된 예산을 토대로 지난해 1월 3천400여권의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한 이후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신규 도서를 구입하지 못한 채 월 96만원씩 배정되는 예산으로 정기간행물만 간신히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교부세 삭감 등으로 올해 구예산이 62억원 가량 줄어들어 도서관구입비를 책정하지 못했다”며 “오는 5월,6월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반드시 신규도서 구입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책 불 생각하지도 마라? : 강서도서관 예산난 핑계, 1년 넘게 신간 구입 안 해,” 부산일보, 2001. 3. 26.

27)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시·도 소관 191개 공공도서관, 시·도 교육청소관 220개 공공도서관, 26개의 사립 공공도서관을 합하여 모두 437개관이며, 도서관 직원 은 행정직이 682명, 사서직이 1,789명, 기타가 2,497명으로 모두 4,968명이다.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도서관통계 2002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8.

28) 울산시 A 공공도서관 L사서의 분석, 2002. 10. 7.

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사서가 이용자에게 적서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책과 사람의 중개자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장려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면 이용자는 사서를 책을 대출해주는 단순기능직 정도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고급인력인 사서에게 단순업무만을 맡기게 되면 전문지식의 활용도가 낮아 사서의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직무개발의 기회가 부족하여 사서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봉사하는 열람과 직원들이 간접봉사하는 사서과 직원들보다 직무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직급, 경력, 보수 등 업무 외적인 요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다른 하나는 업무의 전문성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²⁹⁾ 하는 일이 전문성이 적은데, 어떻게 사서 본인이 전문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사서가 교사나 약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정체성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단순 업무에 경도된 일상 때문이라고 본다.

4. 서비스의 영세성

우리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너무 영세하다.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도서대여점이나 배달대여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강렬한데, 공공도서관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사회의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여 이를 충족시키고, 모든 주민들이 지식과 정보에 대한 평등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우선, 대출책수 2-3책에 대출기간도 1-2주일로서,³⁰⁾ 대출책수가 너무 적고 대출기간이 짧다. 특히 대출책수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자료를 포함하여 50점에 3주간 빌려주는 미국의 공공도서관과는 너무 대조가 된다.³¹⁾ 누가 2-3권 빌리러 버스 타고 또 내려서 한참 걸어서 공공도서관까지 찾아가겠는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도서대여점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신생아부터 도서관 서비스의 대상으로 여겨³²⁾ 영국의 공공도

29) 吳大洙, “公共圖書館 司書職 公務員의 職務滿足度에 관한 研究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p.77 참조.

30) 부산시 소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1인당 대출권수가 3권이고, 대출기간은 2주일이다. 그러나 구청 소관 공공도서관인 K도서관과 G도서관은 2권에 1주일이다. 부산은 대부분 초등 1학년부터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타지역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이에게도 대출하고 있었다(예, 서울 정독도서관, 대구 시립 남구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도서관 등).

31) "Fines and Loan Periods for 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Cardholders," 미국 피츠버그 도서관(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홈페이지 <<http://www.carnegielibrary.org/borrowing/grid.html>>. [cited 2003. 2. 8]

32)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를 시작할 가장 좋은 때는 태어난 날이다. 흥분되고 힘든 첫날, 간단한 운율을 읽어주면 지친 부모와 갓난 아이에게 위안이 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함께 ‘이

서관에서는 ‘북 스타트(Book Start)’ 프로그램을,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Born to Read’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³³⁾ 대부분의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고 대출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보호자가 어린이를 위해 대출을 원한다면 어린이의 대출증을 발급하여 대출해 줄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도서관에 다니며 책읽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의 지적·정서적 발달에 아주 유익할 뿐더러 공공도서관으로서 평생 이용자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데,³⁴⁾ 독서교실과 독서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의 자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공간과 관련된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주민들이 문화강좌를 수강하러 와서 책도 읽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험공부 하러 와서 이따금 소설을 빌려 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연관되어야 하고, 그 결과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고, 자료의 이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자리가 아니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점차 자료실을 확대하고, 열람실을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 개최하는 프로그램은 자료와 관련되지 않고 자리만 제공하는 것이니, 구호와 현실이 상치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서가 아니라 대부분 외부강사라는 데에 있다. 이즈음 공공도서관에서 인기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연동화를 예로 들어 보면, 강사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동화 구연을 마치고는 그 책을 도로 가지고 가므로 동화를 들었던 어린이들은 그 동화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도 읽을 수 없다. 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구연동화는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장서의 이용, 나아가 어린이의 독서증진으로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사서가 도서관의 서가에 꽂혀 있는 동화책을 몇 권 들고 나와 재미있게 읽어 주며, 간간이 동화와 관련된 노래와 율동을 곁들인다면 어린이들은 듣고 나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동화책도 읽게 된다. 적어도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책읽기를 권장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행사가 강사의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도서관의 장서와 유리되지 않으려면 사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따금 주위의 도움을 받더라도 주체는

야기 나눌’ 거리가 생기는 셈이다. 대부분의 어른은 놀라겠지만 아기들은 책을 좋아한다. 화려한 그림과 낱말의 리듬, 사랑하는 어른이 함께 있다는 데 반응한다.” Mem Fox, 현명한 아이로 키우는 독서육아법, 공경희 역(서울 : 중앙M&B, 2002), p.40.

33) “News and Events,”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공공도서관(Montgomery County Public Libraries) 홈페이지 <<http://www.mont.lib.md.us/search.asp>>. [cited 2003. 2. 6]

34) “사군자, 한문, 서예, 수지침, 일본어, NIE, 발간장관리, 꽃꽂이, 쿨트”는 부산의 P공공도서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2002년에 개설한 문화강좌이다.

사서여야 한다.

5. 도서관 건축구조의 낙후성

도서관은 사람이 책을 만나는 곳이다. 책은 보여주고 소리는 감춰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로비가 아니라 가득한 지식이다. 건물에 들어서면 건물 가득한 책이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책을 가리는 구조물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건물과 설비는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져야 하며, 소리를 잘 흡수하는 좋은 깔개가 깔려야 한다.³⁵⁾

그런데 우리 공공도서관의 건축구조는 어떠한가? 도서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것은 책이 아니라 학교에 들어선 것처럼 복도와 팻말이 붙어 있는 개개의 독립된 방이다. 그리하여 사서는 각 방의 문앞에 앉아서 대출·반납과 서가 배열로 하루의 일과를 채우고 있다. 사서 고유의 참고봉사 등 고급의 서비스는 온데간데 없고 방지킴이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인력의 낭비인가? 이때의 도서관은 지식의 전당이 아니라 책의 창고이고, 사서는 지식과 정보의 중개자가 아니라 창고지킴이의 기능만 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하나 공공도서관 건축구조의 문제는 지하에 위치한 식당과 매점이다. 공공도서관 지하에 식당과 매점이 위치하고 있으니, 도서관의 중앙현관문을 열면 우선 음식냄새가 난다. 이는 벌레와 곤충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이는 일이므로 자료의 보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하층에 식당과 매점이 있어서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먹게 되면 자연 벌레가 생기게 되고, 이는 윗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료와 서가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도서관 건물 내에서는 담배는 물론이고 음료수와 과자 등 일체를 먹거나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도서관에 식당이나 매점이 필요하다면 도서관과는 별개의 건물에 마련해야지 현재와 같이 동일한 건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 자판기도 필요하다면 도서관 바깥에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현재 유통되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조직하여 제공하는 곳이지마는, 한편으로는 이를 잘 축적·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책무를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도서관의 위치이다. 공공도서관의 건물은 중심지에 위치하여야 하고 신체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³⁶⁾ 즉 공공도서관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처럼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거의 대부분이 접근하기 불편한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버스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하므로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니, 장애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이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서무실은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1층 중앙현관 입구에

35) “건축가 서현이 본 우리문화 우리건축④ : 도서관, 지식의 전당인가 책의 창고인가,” 東亞日報, 1999. 11. 1.

36)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 H. C. Campbell, 전제서, p.169.

위치한 반면, 도서관은 접근하기 불편한 제일 꼭대기층인 4층이나 5층에 위치한 것과 같다. 등록금은 꼭 내야 하지만 학교도서관은 가든지 말든지 별반 문제가 아니라는 것처럼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꼭 필요한 곳이지만 공공도서관은 낯설고 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현수준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보기이다. 우리는 아직도 공공도서관을 시민의 중심적인 문화공간이 아니라 주변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IV. 공공도서관의 개선방안

1. 공공도서관 건립 운동의 추진

한국인의 일상적 삶이 공공도서관과 밀착되지 않고 유리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공도서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가, 주민이 합심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을 많이 건립함과 아울러 공공도서관 건립을 권장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미술관 건립처럼 도서관 건립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가 공공도서관을 위해 기부한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와 빌 게이츠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와서 미국철강회사를 설립하여 부호가 된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의 자선에 의해서 가장 큰 힘을 얻게 되었다.³⁷⁾ 1881년 그의 출생지인 스코틀랜드 던퍼물린에 무료의 공공도서관 건물을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앨리게니아에 이어 피츠버그에 기증을 시작하였다.³⁸⁾ 그가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도서관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는, 배우기를 원하면 누구

37) Donald J. Sager, 공공도서관운영론, 임명순, 남영준, 오동근 공역 (서울 : 구미무역(주) 출판부, 1991), p.19.

38) “카네기가 최초로 공공도서관을 기부한 곳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던퍼물린이었으며, ‘카네기 도서관’이라고 명명되었다. 카네기는 많은 사람을 위해 도서관을 세움으로써 그 옛날 자기네의 장서를 빌려준 던퍼물린의 직조공이나 앤더슨 대령의 친절에 보답했던 것이다.

다음은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피츠버그에 도서관을 기증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는 시장에게 피츠버그가 용지를 제공하고 매년 유지비 1만 5천달러를 부담한다면 25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시장이 거절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살았던 앨리게니아에 제의했다. 시는 그 기부를 받아들여 도서관과 음악당과 강당을 지어서 1890년 헤리슨 대통령

나 스스로 공부하여 그가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과 같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무료의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91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카네기는 미국에 건립된 1,679개의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전세계 영어권 국가에 2,509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다.³⁹⁾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MS)사 회장인 빌 게이츠(Bill Gates)가 만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⁴⁰⁾이 교육부문 가운데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미국 도서관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정보 교육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7,000만달러를 들여 미국 5,800개 도서관에 2만 5,000여대의 컴퓨터를 설치했다. 2003년까지 50개주의 1만개 공공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경제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⁴¹⁾ 이러한 빌게이츠의 도서관지원 사업은 1세기 전 카네기가 세운 공공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스콰이어문화재단의 이인표 사장이 ‘문화적·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게 독서하며 생각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해 어린이의 꿈을 키워주고자’⁴²⁾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듯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업의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원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은 문화방송

이 참석한 가운데 이 건물의 헌납식이 성대하게 행해졌다. 얼마 후에 피츠버그시는 카아네기의 기부를 거절한 것을 후회하여 재고를 요청하기에 그는 처음 제의했던 금액의 4배인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그는 그 동기를 허버트 스펜서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만약 내가 처음에 기증을 제안했을 때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다면 아마 그쪽에서 재고를 요청해왔을 때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도 나를 기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피츠버그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서 소년시절을 보냈고, 이곳에서 인생을 출발했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을 만들었으므로 그들 안에 숭고한 것에 대한 커다란 동경을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그밖에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다. 지금 운명의 친절한 배려에 의하여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피츠버그시는 스스로의 손으로 그것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피츠버그에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음악당이 세워졌다.” A.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 신일성 옮김(서울 : 일신서적출판사, 1993), pp.172-269 참조.

- 39) “Libraries”,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홈페이지, <<http://www.carnegie.org/sub/kids/libraries.html>>, 2003. 1. 15.
- 40) 세계 최대규모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MS)사 회장이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 단체다. 부인 멜린다와 함께 설립한 이 재단의 자산은 약 210억 달러(약 27조 3,000억원)에 달한다. 과거의 미국 자선 사업가들이 내놓은 돈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이 재단은 최소 기부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테마로 ‘교육’과 ‘건강’을 골랐다. 지구촌에 건강과 교육혁신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 41) “[함께 사는 지구촌](4)빌 & 멜린다 게이츠재단,” 대한매일, 2001. 3. 26.
- 42) 인표어린이도서관은 1990년 5월 4일 서울 상계동에 제1호 인표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한 이후 전국에 14곳, 중국 6곳, 카자흐스탄알마티, 러시아 사할린 등 해외에 8곳 총 22곳에 동일 모델의 분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도서관들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한 대도시 영세민 지역이나 도서산간벽지 등 문화적 혜택이 미비한 곳의 사회복지관 등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상계동과 구로동, 강원도 태백과 전남 진도 등 책과 문화행사를 향유할 기회가 적은 곳이 인표어린이도서관이 찾아가는 곳이다. 인표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inpyolib.or.kr/introduce.shtml>> [cited 2003. 2. 1]

(MBC)의 ‘느낌표’ 제작팀과 함께 전국 각지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주기 위한 공익사업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이고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아담하고 예쁜 도서관을 지어주어 그들이 맘껏 꿈을 키우고 세계를 만나고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자발적 발의와 참여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의 도서관들을 전국 여러 곳에 지어줄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한 사업이다. 이 ‘기적의 도서관’ 사업도 도서관이라는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위한 창조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운동의 기본 목표를 담고 있다.⁴³⁾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을 민간의 힘으로 건립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 신도들이 기왓장을 한 장씩 보시하듯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시민들이 벽돌을 한 장씩 기부한다면 공공도서관이 더욱 많이 세워지지 않을까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에 우선 지역 중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시·군·구의 중심 공공도서관 산하에 분관 형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분관은 여건에 따라서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경찰서나 파출소, 혹은 농협을 신축할 때 2·3·4층을 공공도서관으로 꾸미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잇점이 있다. 그리고 아파트 신축시 노인정처럼 관리사무소의 윗층에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 작은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규모는 이동도서관 수준에서 출발하면 될 듯하다. 차이는 상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고, 공통점은 참고자료는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장서를 다른 작은도서관과 교체해주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꿈같은 말로 들릴 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1동·면에 1도서관 세우기 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장서개발이나 조직은 지역 중심 도서관에서 일괄 처리하고, 작은도서관은 서비스만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다.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나 후원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도서관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 주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고, 이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도서관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제는 한국인도 삶의 질을 관리해야 할 때가 되었으므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아픔답지 못한 칭호는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43) “책읽는사회, 문화방송 ‘느낌표’ 제작팀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주관”,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www.bookreader.or.kr/news/nk_view.php?num=39> [cited 2003. 1. 16]

2. 장서구입비의 대폭 증액

공공도서관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할 만한 것은 공공도서관의 ‘내실’이다. 공공도서관의 사명은 시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모든 이에게 읽을 자료를 보장하는 것이며, 모든 지식원과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자료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전 인류가 축적한 지혜와 경험을 접근하고 싶은 동기나 호기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고 갈등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⁴⁴⁾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지식원과 정보원의 규모가 매우 왜소하므로 정작 도서관을 찾더라도 볼 책이 적다. 그리하여 공공도서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료가 필요한 이용자들의 발길은 줄어들고, 대신 자리가 필요한 고시생이나 입시생들이 주요 이용자가 되고 있다.

장서의 영세성은 빈약한 자료구입비에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비해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배포하는 수단이다. 시민들이 인류가 생산·축적한 세계의 자원인 세계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러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의 책임이다.⁴⁵⁾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고 그 노력을 지원하며,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하는 데에⁴⁶⁾ 도서관과 사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2년 기준으로 한해 동안 학습참고서와 만화를 제외하면 2만 6천여 종의 신간 도서가 발행된다.⁴⁷⁾ 신간 도서의 절반인 1만 3천 종을 1만 2천원에 구입한다고⁴⁸⁾ 가정할 경우 도서구입비만 공공도서관 1관당 1억 5,600만원이 필요하다.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437개가 있으므로 681억 7,200만원이 필요한데, 디지털자료 구입비를 추가하면 도서구입비가 700억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만 3천종을 2권씩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1관당 3억 1,200만원이 소요되므로 전국적으로는 도서구입비만 1,363억 4,400만원이 필요한데, 디지털자료 구입비까지 추가하

44) Donald J. Sager, 전계서, p.116.

45) H. C. Campbell, 전계서, p.161.

46) “도서관인 윤리선언,” 1997. 10. 30 제정.

47) 2002년 1년 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납본을 의뢰한 출판사들의 도서 발행량을 집계한 결과 신간 도서의 발행량은 총 36,185종(만화 포함)이었다. 여기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입수하지 않는 학습참고서(2,319종)와 만화(9,060종)를 제외하면 24,806종이다. 하지만 만화(9,060종) 가운데 학습만화와 교양만화(출판량을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지만)는 구입하므로 공공도서관의 수집대상 신간 도서를 2만 6천종 가량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2002년도 출판통계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http://www.kpa21.or.kr/data/pubstatic.html>>, [cited 2003. 3. 10]

48) 2002년을 기준으로 신간 도서 1권당 평균 정가는 11,959원이다. 상계자료.

면 1,400억원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437개 공공도서관의 2001년도 자료구입비는 282억원이 채 못 되므로,⁴⁹⁾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자료구입비는 2001년 기준으로 6,500만원이다. 이로 볼 때 ‘책 없는 공공도서관’은 당연한 귀결이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을에 가을걷이를 할 수 있겠는가?

공공도서관이 국가의 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면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전국 어디에서 저술되고 발행된 자료이건 이에 접근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⁵⁰⁾ 따라서 국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세계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우선 현재의 도서구입비 282억원을 연차적으로 배가하여 우선 1,400억원 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용자들이 새로 접할 새로운 지적 세계에 대한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공공도서관을 찾게 된다면, ‘책 읽는 사회’, ‘성숙한 시민사회’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

3. 단순업무에서 전문직무로의 전환

도서관과 사서는 이용자 또는 잠재적 이용자의 합법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수집하고 조직한 자료의 바탕 위에서 이용자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자료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사서는 이용자와 정보원 사이에서 이러한 중개자의 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소극적인 이용자가 적극적인 이용자로 바뀔 수 있고, 잠재적인 이용자가 현시적인 이용자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은 사서와 이용자 모두에게 만족과 이익을 보장해 준다. 만약 공공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아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인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공공도서관은 물론 사서직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나 부족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⁵¹⁾ 사서를 대출·반납·서가 정리 등의 단순업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사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가장 근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용자에게 최상의 자료의 세계를 보여주는 전문적인 사서 본연의 의무⁵²⁾를 이행할 수 있는 직무구조

49) 281억 8,914만 9천원이다. 공공도서관협의회, 상계서, p.11.

50) H. C. Campbell, 상계서, p.162.

51) “사서가 일상적인 대출업무를 담당한다면, 이것은 부족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Philip Gill,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69.

52) 남태우, 김상미 공편,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사상 : 셰라(J. H. Shera)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

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서는 지역사회 이용자들의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와 시스템을 설계, 기획, 조직, 구현, 운영, 평가와 아울러 장서개발, 자원의 조직과 활용, 이용자가 정보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언 및 상담, 그리고 도서관의 자원에의 접근을 촉진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기술, 사회에 대한 이해, 협동성, 지도력, 조직의 관행이나 절차에 대한 업무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직으로서의 위와 같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서는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기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므로 사서를 위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네트워크와 기타 정보원에 대한 접근도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⁵³⁾

사서가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사서 본연의 지식정보 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서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서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공공도서관에서는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연령별·계층별로 연구하여 도서관과 책읽기를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사서가 주인이 되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매개로 한, 자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자료 이용이 활성화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면 사서가 어떻게 전문적인 강좌를 주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의 재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만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서가 주체가 되어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우선 어린이를 위해서는 연령별로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storytime)을, 성인을 위해서는 주제별로 독서토론회와 역사적·사회적 관심사에 따른 도서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들 수 있다.⁵⁴⁾

도서관협회, 2000), pp.198-200.

53) Philip Gill, 전거서, pp.67-69 참조.

54)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독서의 요람이다. 워싱턴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23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소장 도서는 모두 255만권이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주민은 시간당 125명이다. 이 23개 도서관에서 연간 책 읽기를 장려하는 특별행사는 무려 4,000회로서 어른들을 위한 '독서대화방', 미취학 어린이 대상으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스토리 타임'이 있다. 미국의 경우 도서관에 시민들이 발길이 잦은 이유는 그만큼 최신 시설에 읽을 만한 책들을 소장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자 미래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역이나 부모의 빈부에 관계없이 과제해결과 보충심화학습은 물론 여가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관련 사이트에 대한 안내는 물론 유료사이트도 공공도서관 내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한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공공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의 긍정적인 힘이며,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기와 수단을 제공해 주는⁵⁵⁾ 데에 교육적 기능을 지닌 공공도서관도 일조해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반·주부반·노인반 등의 연령대별로 컴퓨터 사용법 등의 초보에서부터 인터넷 검색, 전자우편 이용 등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정보화에 소외되었던 계층을 동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라도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나 무료로 인터넷 검색이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료의 PC방에 갈 필요 없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즉 공공도서관은 주민에게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복지의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서비스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봉사이다. 이는 민족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 혹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봉사이다.⁵⁶⁾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그들의 모국어로 된 도서와 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이라도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 예를 들면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개인의 연령·인종·종교·국적·사회·정치적 견해 때문에 거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⁵⁷⁾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세계화 시대에 세계 시민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조만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를 열자 : (2) 미국의 힘은 독서," 매일경제, 2001. 10. 5.

55)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리스본선언(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 1998. 8, 천장웅, 김영지, 김경호,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 (서울 :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9), pp.85-92 참조.

56) H. C. Campbell, 전게서, p.87 참조.

57)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권리장전," 남태우·김상미 공편, 전게서, p.187.

5. 보존을 위한 도서관 건축

도서관은 열람실을 갖춘 단순한 서고가 아니다. 그곳은 지식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서적의 우주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도서관을 ‘영혼의 치유소’라고 했다. 노동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또한 노동이 안겨주는 보상과 충족감까지 베푸는 세계가 천국이라면, 책과 책이 자리한 공간을 천국이라고 했다. 도서관은 극장이나 미술관처럼 범속한 일상사나 현실세계로부터도 차단되고 구별된, 그러므로 그만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자기 완결적인 공간이다. 도서관이란 좋은 책으로 가득 차 벽찬 설렘과 기대감으로 찾아드는 문자의 우주이다. “거기의 모든 것은 반듯하고 아름다우며, 영화와 열락(悅樂)과 고요함이 존재한다”라는 어느 시인의 시 구절처럼 그러한 곳이 도서관이다. 그리하여 17·18세기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의 영국인들은 도서관의 건축을 통해 천국을 실현하고자 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은 건축예술 최대의 걸작으로서 “도서관으로서 이 이상 아름답고 마음 편한 곳이 없다”는 평을 받았으며, 어느 시인은 “천국은 도서관 모양이리라”고 읊었다⁵⁸⁾

이런 의미에서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이 최상의 기쁨과 열락을 맛볼 수 있도록 반듯하고 아름다운 책들과 안락한 시설을 갖추어서 범속한 일상사로부터 단절된 자유로운 공간이 되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책을 가리는 모든 구조물들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도서관을 들어서면 보이는 것은 복도와 팻말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서는 책 지킴이에서 벗어나 자료와 이용자의 중개자로서 또는 영혼의 치유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한 항구적인 사회적 장치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과거와 현재에 생산된 지식과 정보를 선별·조직하여 이용에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인류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을 건축할 때에는 위치선정에서부터 재난대책의 수립까지 전 과정에 보존의 개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도서관에 불의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⁵⁹⁾ 장서가 일시에 대량으로 파손되어 자료의 가치가 영구히

58) 이광주,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 권(서울 : 한길아트, 2001), pp.157-182.

59) 도서관이 재난을 당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1994년 9월 일본 오사카에서 집중호우로 오사카대학 도서관의 지하 콘크리트벽이 갈라진 틈으로 침수를 당해 장서 1만권이 젖었다. ② 1998년 2월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도서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360만권의 도서가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40만권의 도서가 완전히 손실되었다. 화재진압을 위해 뿌린 물로 인해 추가로 참고도서만 15만권이 손상을 입었다. ③ 1986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공도서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40만권을 불태우고, 4개월 후에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25,000권을 태웠다. ④ 1978년 미국 스탠포드대학 도서관에서는 급수관이 파열되면서 지하서고에 물이 넘쳐들어 4만권 이상의 장서가 피해를 입었다. 방준필, “도서관 장서를 위한 재난대책 수립,” 한국비블리아, 제8집(1997. 12), pp.137-138.

사라지거나 일시에 마비될 뿐 아니라 도서관은 많은 이용자로 항상 붐비기 때문에 인명 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정보화 시대에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지적인 힘의 원천인 창의력과 상상력은 기호를 보면서 기호 뒤에 숨은 의미를 생각하는, 즉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책읽기에 의해서 길러진다. 책과 책읽기를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무료로 지원하는 영속적인 문화인프라는 공공도서관뿐이다. 공공도서관은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정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에 뒤진 자들의 경쟁력 회복이나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복지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서관 없는 나라·책 없는 도서관”이다.⁶⁰⁾ 한국의 공공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우선 공공도서관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장서도 절대 부족하며, 인력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빈약하다. 아울러 도서관 건축도 도서관의 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많이 신축하고 장서구입비를 대폭 늘려 주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요구를 언제나 어디서나 무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공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 그리하여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교육을 장려하고, 계몽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⁶¹⁾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서는 방지기미에서 벗어나 자료와 이용자의 중개자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서관의 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책읽기와 도서관을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에 대한 마인드가 구현되도록 도서관도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과 아울러 기업가와 시민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60) “도서관 현황,”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www.bookreader.or.kr/library/library.html>> [cited 2003. 2. 3]

61) Donald J. Sager, 전계서, p.116.